

### 제4차 이사회 개최 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등 불황대책 협의

오리업계의 장기불황 해결방안의 하나로 소비촉진 행사가 중점추진된다. 또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리고기 먹는날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모색된다.

본회는 지난 12월 22일 제4차 이사회를 열어 업계불황타개를 위한 대책(안) 회원정예화에 관한(안) 전북지회 설립 및 충남북지회 통합에 관한(안) 등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업계불황타개를 위한 대책에서 현재의 불황타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리고기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위한 방안으로 1월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오리고기 무료시식행사등 소비촉진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또 오리고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오리고기 먹는날을 제정하여 이를 업계에 홍보하는 방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협의키로 했다.

지난해 6월부터 거론된 회원정예화에 관한(안)에서는 중부지회 및 중부북부지회, 광주전남도지회 충청지회, 강원지회등 5개지회에 대한 정예화안이 상정돼 이중 중부지회 23명, 중부북부지회 13명, 강원지회 2명, 광주전남지회 104명등 총 142명에 대하여 의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명조치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차기 회원가입시 자격요건을 갖춘회원이라도 반드시 이사회의 심

의를 거쳐 회원으로 가입시키도록 했다.

또 전북지회 설립에 대한 안에서는 2001년 총회개최이후 이지역 회원들의 참여여부를 확인하여 결정기로 하는한편 충남북지회 통합에 대해서는 충청지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참여회원이 많은 경우 차기이사회에서 결정기로 심의를 유보했다.

### 폭설피해 관련 조속한 피해복구 촉구

지난 1월 7일 폭설로인한 충청지역 및 경기지역 오리사육농가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과 관련해서 본회는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국내 오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업계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7일의 폭설로 이 지역 오리 사육농가들의 상당부분의 축사가 파손되어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사육기반이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34개농가에서 축사 1만8천평이 완전파손되어 이에따른 피해금액이 18억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0%에 해당하는 8만여수의 오리가 압사내지는 동사하여 3억원내외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조속한 복구가 어려워 이에따른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육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속한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재해대책 피해보상관련 건의문 제출

본회는 지난 1월 10일 재해대책 보상과 관련하여 현행 보상규정이 오리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따른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이 건의문에서 본회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정부의 관련규정이 오리의 경우 새끼 오리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어 타 축종에 비해 불합리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보상규정이 오리업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오리축종의 피해보상 규정은 육용오리 새끼에 대한 입식자금으로 6백64원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육용오리 새끼 및 중오리와 중오리 새끼 및 육성오리로 구분하여 세분화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이에따른 보상금액도 육용오리 새끼의 경우 8백20원, 중오리(20일 이상) 2,100원, 중오리 새끼의 경우 수당 3천원, 육성오리(2개월 이상) 수당 6천원으로 책정하여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위생고시 확대적용과 관련한 검토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해 9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적용대상지역 지정 및 작업장 설치규정 개정과 관련한 농림부의 고시개정 입법예고와 관련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검토의견에서 본회는 현재의 상황에서 위

생고시 지역의 확대적용은 오리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위생고시 지역 확대에 앞서 오리를 도축할 수 있는 도축장 설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에 최소한 3개소 내외의 오리를 도축할 수 있는 오리전문 작업장이 먼저 건립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정부의 기존도계장을 활용한 작업장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오리위생도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오리를 전문으로 도축하는 도축장을 우선하여 지원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전문도축장에 대한 신규 건립이 어려운 경우 기존 도계장을 오리전용작업장으로 전환하여 오리도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리와 닭을 병행하여 작업하는 작업장의 시행은 업계현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했다.

### 북한산 오리고기 반입승인과 관련한 검토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10월 5일 북한산 오리고기 반입승인과 관련한 검토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검토의견에서 본회는 국내 오리업은 지난 5월 중국산 가금육이 수입재개되면서 막대한 물량의 중국산 오리고기가 수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현실에서 북한산 오리고기의 국내반입은 국내 오리사육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오리사육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북한산

오리고기 반입승인은 사육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된 이후에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임시총회 및 오리질병세미나 개최

본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임시총회 및 오리질병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원축협 웨딩프라자에서 신촌사료, 제일제당, 삼양사, 우성사료, 신동방사료, 대한제당 푸리나코리아 등 7개 사료업체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제1부 오리질병세미나, 제2부 임시총회로 개최됐다.

오리사육업계 및 관련업계 종사자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는 수의과학검역원 성환우 박사의 오리전염성 간염의 질병예방 및 치료대책, 녹색자수의약품 이상선이사의 오리질병예방을 위한 대책 및 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는 회원정예화 및 회비납부에 관한(안) 및 불황극복을 위한 대책(안), 오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조금 조성(안) 업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안) 등에 대한 안이 상정되어 토의됐다.

### 오리고기 무료시식행사 후원 강원도 청산오리

본회는 지난해 12월 12일 강원도 청산오리농원(대표 장석용)의 주최로 열린 오리고기 무료시식행사와 관련하여 후원했다.

원주시내 한 시장통에서 개최된 이날 오리고기 무료시식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서 장석용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본행사는 오리고기의 건강식으로의 올바른 이해와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육농가에 다소나마 힘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며 오리고기 소비확대에 시민의 이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역 KBS방송 및 축산신문등이 취재하여 보도하였으며 본회는 장규호고문 및 송종하 이사가 참석하여 행사를 견려했다.

### 광주전남도지회 오리고기 무료시식행사 개최키로

본회 광주전남도지회는 오는 2월 7일 광주 시내에서 오리고기 무료시식을 겸한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광주전남도지회는 지난 12일 지회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오리고기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는 소비촉진행사의 방안으로 2001년을 상징하는 2001마리의 오리를 회원들로부터 납품받아 무료시식 및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소비촉진행사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현재의 새끼가격을 15일부로 600원으로 재조정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로 했다.

### 오리중금속 취재관련 협조요청

본회는 지난 12월 7일 모방송국의 오리고기 중금속 취재와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에따른 업계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담당기자 및 방송국에 협조를 당부했다.